메시지 6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3)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

성경: 마 28:19, 고후 13:14, 계 1:4-5, 4:5, 5:6

Ⅰ. 신약에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이 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한다.

A.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렇게 세 위격이 계신다 — 마 28:19.

B. 한 면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말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 있다.

1.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2. 이 한 이름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안의 셋이심을 계시한다.
3.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고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이끌어, 이 신성한 인격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하는 것이다 — 마 28:19.

C.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깊은 문제이다 — 고전 12:13, 갈 3:27.

1.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안으로'는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2.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한 연결 안에 넣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것이다 — 마 28:19.

D.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명령은, 주 예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 거치신 과정의 완결인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내리신 것이었다.

1.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이 과정은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포함하는 육체 되심으로 시작하여 부활로 완결되었다 — 요 1:14, 롬 6:4.
2.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 고후 3:17.
3. 삼일성의 인격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영 안에 침례 받는 것이다 — 마 28:19.
   a. 이것은 아버지의 풍성과 아들의 풍성과 그 영의 풍성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 엡 3:8.
   b. 침례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제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 영께서 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 고전 6:17, 요 15:4-5, 7.

Ⅱ.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 고후 13:14.

A.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세 방면에서의 세 위격, 곧 아버지 하나님(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은혜)와 성령(교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B.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 고후 13:14, 마 28:19.

C.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부합한다.

1.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 — 요 1:17, 고전 15:10.
2.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 요일 4:9.
3.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 고후 13:14.
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영 하나님의 교통 안에 있다 — 요 3:16, 1:17, 16.
   a.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 — 고후 13:14.
   b.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며, 이 은혜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 고후 13:14.
   c.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 요 1:14, 16, 요일 4:9-10.

D. 신성한 삼일성에는 근원과 과정과 흐름이 있다 — 고후 13:14.

1. 근원 곧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 요 3:16, 4:14.
2. 과정 곧 흘러나옴은 그리스도에 의해 표현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이다 — 고전 16:23.
3. 흐름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통과 전달과 순환이신 성령이다 — 고후 13:14.

Ⅲ.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 계 1:4-5.

A.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1.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다.
   a.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는 "나는 '나는 -이다'이다."라는 의미이다 — 출 3:14, 6.
   b. 그분께서 '나는 -이다'이신 것은 그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뜻한다.
2.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 곧 유일하게 존재의 실재를 가지신 분이시다.
3.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a.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다'이시며,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

b.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존재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 외에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 출 3:14.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d.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에서 홀로 유일하신 분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히 11:5, 창 5:22-24.

B.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 대해 말한다.

1.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뜻하는 일곱 영(1:4, 4:5, 5:6)으로 불리신다.
2.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일곱 영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한 영이시다(엡 4:4). 왜냐하면 일곱 영께서 삼일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나란히 계시기 때문이다.
3. 일곱은 하나님의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일곱 영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분이심이 분명하다 — 계 4:5.
   a.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과 존재에서는 하나이시다.
   b.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실 때에 그 강화된 기능과 일에서 일곱 배가 되신다 — 계 1:4.
4. '일곱 영'이라는 칭호는 그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셨음을 가리킨다. 이 영은 그 영의 모든 요소들, 곧 신성과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실재와 은혜 등을 강화하신다 — 계 3:1.
5.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린양의 일곱 눈이시다.
   a. 구속하는 어린양으로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에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4:5, 21:2, 9-10.
   b. 어린양의 일곱 눈이신 일곱 영은 또한 주입하기 위해 계신다.
   c.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곱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일곱 영인 이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요소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 계 5:6.

C.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1. 하나님의 살아 있고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과 행위로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증거이다 — 계 1:5상.
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 곧 죽으신 적이 있지만 이제 영원토록 살아 계시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 계 1:5하, 18.
3. 승천 안에서 주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 계 1:5하.
   a.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어 모든 왕들 위에 계신다 — 계 5:6.
   b. 보좌에 앉은 분이신 주 예수님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이 땅, 곧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 계 1:5하.

© 2021 Living Stream Ministry